

한전, ‘중대재해 근절 원년’ 선언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

본사 안전 전담 조직 확대 등
조직·제도·기술 전방위 개편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 추진
협력사 합동 특별무재해 운동

한국전력공사가 ‘중대재해 근절 원년’을 선언하며 안전경영 혁신에 속도를 낸다. 조직·제도·기술 전방위 개편과 함께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협력사와 합동으로 100일 특별무재해 운동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 김동철 사장은 “오늘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약속”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타협 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안은 △조직·인력 등 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용역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안전점검 기동팀’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와 협력해 현장 안전 인력 신규 채용을 단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협력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QR코드 활용 인력 관리, 스마트 CCTV 성능 고도화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지원과 안전예산 선지급으로 협력사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 혁신도 병행된다. 절연스틱 공법, 전주 인력오름 폐지 등 기존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휴전작업 확대, 다기능 작업차량 개발, 드론 공법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감전·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근로자의 상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VR 안전체험 장비, 스마트 글라스 등 자체 개발 장비를 교육과 현장 관리에 활용한다.

한전은 이날 선포식과 동시에 ‘100일 특별 안전관리 무재해 운동’을 즉시 전개하기로 했다. 본사·사업소·협력사 합동 안전점검과 현장 근로자 집중교육을 통해 실천 중심의 안전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포 산단 中企 에너지효율화 지원 본격화

한국서부발전, RE100 실현 속도 재생에너지 중심 정부 정책 부응

한국서부발전이 김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차 진도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포시와 김포산업지원센터, 모범청년기업인협회 관계자, 참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서부발전이 김포산업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체결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절차를 거쳐 선정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RE100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개선, 에너지 비용 부담, 현장 애로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또 ‘2025 기후산업국제



서부발전은 지난 8월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차 진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포시와 김포산업지원센터 관계자, 기업 대표, 모범청년기업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부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를 방문해 국제 기후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최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다.

서부발전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첫 사례로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11.69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와 소형풍력,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메가스테이션’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RE100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콰도르 시장 열렸다… 관세 단계적 철폐

한-에콰도르 SECA 정식 서명
중남미 시장 다변화 가시화 전망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화장품, 라면 등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상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철폐 중심의 전통적 FTA에서 한 단계 진화해 환경·노동·공급망·보건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3위 원유 생산국이자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미국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붙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화장품·라면·의약품 등 소비재도 5~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현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가 온라인게임, 영화·음반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면서 K-콘텐츠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10년)·정제유(5년) 상호 개방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반면 쌀·마늘·양파 등 민감 농수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공급망 위기 공조, IT·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올해 쌀 45만t·콩 6만t 매입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확정
군급식, 가공·주정용 등으로 판매

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t)과 콩 6만 t을 사들인다. 공공비축미는 군용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내용의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은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고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t, 콩 6만t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 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kg 조곡 기

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p) 가격’을 추가로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t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과학원, 환경위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NASA 등 국내외 20여개 기관 참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

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GEMS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2월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또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이 논의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해소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세안(ASEAN) 주요국과 손잡고 에너지효율 분야의 기술규제 해소에 나섰다.

국표원은 2일~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열고,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8개국 규제 당국자와 국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을 논

의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도입한 기술규제는 지난해 221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애로 사례가 35건으로 급증해, 규제가 한국 기업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내 정책 간 조화 사례 등 규제

운영 경험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우리 기업 100여곳도 아세안 각국 담당자와 직접 만나 최신 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